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35호 【루계 제2503호】

주체107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음력 7월 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운곡지구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운곡지구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목장의 우량종축산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8월 5일 목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량종축산연구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과업집행정형과 최근에 진행한 연구사업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종사업과 사양관리방법을 과학화하고 현대화수준을 높여 축산에서 선진국가대렬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현재 기르고있는 집짐승들의 종자퇴화를 막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구소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다수확먹이작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료용사탕수수포전에 들리시여 정보당수확고가 80t 이상이라고 하는 이 종자를 빨리 전국에 도입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고 재배가 헐하며 경제적효과성이 뛰여난 먹이작물을 많이 퍼치면 축산에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먹이작물재배시험에서 해당 품종의 생물학적특성이나 해명하는것이 기본이 아니고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것이 기본인것만큼 최적한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에서 재배시험을 하여 평가하고 전국에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료용뽕나무포전을 찾으시여 다수확먹이작물, 우량품종의 사료용풀들을 많이 재배하여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알곡사료단위를 낮추는것은 축산에서 가장 관건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육종사업에서의 핵심목표는 생산성이 높고 사료단위가 낮으며 고기질과 맛이 좋은 종자들을 전국에 퍼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구소를 더욱 강화하자면 과학자, 연구사대렬을 잘 꾸리고 축산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실태를 료해하고 국가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량종축산연구소에서 축산을 과학화,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항구적인 목표로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의 과학축산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성과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비육소원종장 1직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우량종자들의 퇴화를 막고 원종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사업을 짜고들며 증체률이 낮고 고기맛과 우유의 질이 높지 못한 소품종들을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사육에서는 소우리환경을 수의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관리하며 품종별특성에 맞게 먹이처방을 잘해 영양관리를 잘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웅대한 축산발전정책을 관철해나가자면 뒤떨어진 우리 나라의 축산과학기술실태를 사실그대로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관점을 세우며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축산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축산부문 과학자, 기술자육성사업을 중시하며 육종연구와 사양관리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과학화,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계별목표들을 잘 설정하고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종합적인 축산기지인 운곡지구종합목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축산물생산과 연구활동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며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개천시 서남동지역에 위치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는 부지면적이 1만여㎡이고 연건축면적은 1,260여㎡로서 사무청사와 후생건물, 알깨우기실, 야외양어못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한해에 새끼쏘가리 수만마리와 먹이용물고기 수십만마리를 생산할수 있는 쏘가리종어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연풍호에 쏘가리를 대대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잘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개천시안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은 돌격대를 뭇고 자재와 설비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건설을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고급어족들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두차례에 걸쳐 종자쏘가리를 보내주시였으며 사업소에서는 얼마전 준공식을 하면서 그 종자쏘가리에서 알을 받아 깨운 수만마리의 새끼쏘가리와 먹이사슬을 이루는데 필요한 다른 종류의 새끼물고기 수십만마리를 연풍호에 방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건설을 도자체의 힘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아담하게 잘 건설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쏘가리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연풍호에서 쏘가리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알깨우기실과 야외양어못을 비롯한 쏘가리순치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쏘가리양어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물고기자원을 나라의 귀중한 자원으로 보호하며 증식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만큼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에서도 쏘가리를 비롯한 많은 새끼물고기들을 대량생산하여 연풍호에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쏘가리를 호수에 번식시키는데서 기본은 먹이사슬을 형성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성질이 급하고 살아움직이는 먹이만을 먹는 쏘가리의 특성에 맞게 초어와 룡어를 비롯한 번식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는 물고기들을 함께 기르면서 먹이사슬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배합사료로 쏘가리를 대량순치하는 기술개발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끼쏘가리 사육은 쏘가리양어에서 가장 관건적인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갓난고기를 충실히 자래워야 생장이 촉진된다고 하시면서 알낳이와 알받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수조탕크들에 적정사육밀도와 적정환경을 보장해주어 새끼쏘가리의 사름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끼물고기를 키우는 수조의 수질관리를 잘하고 오물과 오수를 제때에 배출하고 잘 청소해주며 물려과장치, 물환수장치, 산소공급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들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을 더 설치하여 새끼물고기수조탕크와 양어못관리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쏘가리는 수질조건에 예민하며 돌짬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살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양어못들에 쏘가리의 서식환경을 인공적으로 잘 조성해주도록 하며 먹이용물고기생산호동과 못들을 더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류어업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앞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는데서 필수적선행공정이라고 하시면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와 같은 종어기지들을 전국적으로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면서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한 수산자원보호증식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자연수역들에서의 재배어업과 양어를 활성화해나가면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인민들에게 쏘가리와 같은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쏘가리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새끼물고기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감으로써 연풍호에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고 나라의 물고기자원을 증식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총배치계획안을 보시면서 공사진행정형을 보고받으시고 호텔과 자취숙소, 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건설장전반을 돌아보시며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들이 개별화되고 높낮이에서도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하시면서 층수에서 높낮이차이를 주고 30층, 25층짜리 려관들과 봉사건물들을 더 조직하며 건물들사이의 련결을 더 조화롭고 특색있게 함으로써 전반적거리형성을 예술적으로 세련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림록화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일부 구역들에는 양묘장에 들어온것처럼 같은 종류의 나무들을 일률적으로 심었는데 바다를 끼고있는 해안의 주변생태환경에 어울리게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원림설계를 잘하고 그에 따라 조성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장정치부에서 건설자들에 대한 인원관리도 잘하고 공사장의 질서유지, 로동안전대책, 사고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한건의 사고도 없게 하며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지휘성원들이 건설자들의 후방사업과 공급사업에 언제나 관심을 돌려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난방, 상하수도부문을 비롯하여 하부시설망공사를 질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전기, 난방, 급배수부문 시공을 잘하여 건설에서 표준, 기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와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압시험, 강도시험, 안전성검사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시공지도와 질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특히 임의의 장소에서도 상수도의 압력을 5기압 보장하는것을 정책적으로 틀어쥐고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다물을 끌어들여 인공못들도 만들어놓았는데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자연미가 나게 못들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못들에 낚시터를 꾸리고 봉사시설들도 갖추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사장의 해수욕구획들에 구급의료시설들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구비해줄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경치좋고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려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게 하려는것은 당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사업이며 자신께서 제일 하고싶었던 사업중의 하나였는데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바라보게 되였다고,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천만군민의 견인불발의 투지가 있기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력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제재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고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며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모든것이 어렵고 간고한 시기 이처럼 요란한 대규모공사가 세계적 문명을 압도하며 결속되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될것이며 우리 인민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장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실적을 론하기 전에 이 거창한 창조대전을 통하여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애국자, 충신, 사상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건설자들을 위훈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도록 하며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재부를 창조하게 하여야 한다고, 인민군대가 이러한 투쟁에서도 선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두다 견인불발의 투지와 배심을 안고 세상에 둘도 없는 해양공원을 건설하여 다음해 10월 10일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적하고 이름뿐이였던 명사십리가 곧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랑만의 십리해안으로 전변될것이라고, 앞으로는 명사십리가 인파십리가 될것 같다고 환히 웃으시며 당의 은정속에 희열에 넘쳐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마음껏 누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풍요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온천들을 다양하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듭 연구하시던 끝에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병치료도 하고 관광휴식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관광문화지구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깊은 밤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일경 조선로동당 양덕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을 부르시여 군안의 온천지구에 현재 꾸려져있는 료양소들의 운영실태와 온천리용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경치가 뛰여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자원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료양시설답게 위생문화적으로 온전하게 꾸려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고찰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덕군은 우리 나라 동서부철도의 중간지점으로 4개 도에 경계를 두고 수많은 군과 리들을 이웃하고있고 평양－원산고속도로도 가까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덕군안의 온천들은 류황성분이 많고 라돈이 극히 적은 고온천으로서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약리적작용과 치료효능이 높을뿐아니라 이번에 온천수성분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오염성평가지표인 암모니움과 아질산, 질산이온들과 병원성미생물이 전혀 없어 오염되지 않은 온천으로 평가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종합적인 료양 및 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치료조건이 좋은 온천지구에 여러 무력, 특수단위들에서 저마끔 온실을 지어놓고 남새농사를 하고 메기양어도 하고있는데 온천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온천지구에 꾸려놓은 료양소, 온천치료장들이 위생문화적으로 락후하다고, 경성군에 있는 온포휴양소를 돌아볼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온천수조들이 최근에 잘 꾸려진 양어장들의 물고기수조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온천장들의 내부시설이 낡고 환경이 좋지 못한데 이번에 본보기를 하나 잘 꾸리고 전국각지에 있는 온천장들도 다 일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낮은 산발들과 험한 령길을 헤치시며 양덕군 온정리일대의 온천골들을 돌아보시면서 온천의 용출량과 주변환경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도가 80℃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콸콸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지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이 높고 숲이 무성하여 공기좋고 풍치수려한 양덕군은 온천휴양소, 료양소들을 꾸리기에 적중하다고 하시면서 종합려관을 건설할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이 지구에 종합려관을 덩지가 크게 앉히고 주변에는 자취숙소들도 잘 꾸리며 각종 현대적인 종합봉사시설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고 개별온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욕봉사를 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지구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료양소도 건설하고 지금 이 지구에서 료양소를 운영하는 단위들이 호동별로 리용하도록 하며 개별적인 치료대상들이 료양을 할수 있는 호동들도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휴양소와 료양소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는것과 함께 온천지구를 개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있는 살림집들을 소층과 단층의 유기적결합으로 산간지대의 온천휴양지마을로 특색있게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유명한 온천지가 많은데 비하여 온천문화가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온천지들을 점차적으로 다 때벗이하여야 한다고, 먼저 양덕군 온천지구개발사업을 전국의 본보기로, 국가를 대표할수 있는 급으로 높은 수준에서 하여 기준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설계부터 세계적인 추세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똑똑히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을 찾는 인민들이 교통상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도역도 산간철도역으로서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건설하고 도로포장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지구주변의 국토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선행하여 밀고나가며 산림조성사업에도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지구개발사업을 무슨 일이든 조건타발부터 앞세우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 맡기지 말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인 인민군대가 맡아하여야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빠르게 진척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건설력량과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아 래년도 10월 10일까지 온천지구를 최상급으로 훌륭하게 전변시켜 국가에 기증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온천을 개발리용할 때 온천수의 성분과 효능을 정확히 분석하도록 하며 영업과 관련한 법적규정도 제정하여 나라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일부 단위들에서만 특권으로 리용할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통제속에 전체 인민들이, 후대들이 향유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방후 첫해 이곳을 찾으시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첫 휴양소를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만년대계로 훌륭하게 변모시킴으로써 참다운 인민의 공화국을 일떠세워주시고 동서고금에 류례없는 인민적시책들부터 실시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인민들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이 사업을 혁명의 주력군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맡길것을 결심하고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자기의 투쟁본때, 투쟁기질로 새로운 기적과 대비약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믿음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의 빠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자면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발전력사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힘으로 부강번영을 창조하여온 자력갱생의 력사, 자력자강의 력사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4월에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은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력갱생대진군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강국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뻐스수리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고 생산자들이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훌륭히 만들어낸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생산자들은 새형의 교통운수수단을 개발하는데서 바퀴와 주름련결부, 유리, 후사경, 바닥고무판, 수지장식합판, 의자 등 기계 및 전기부분품들과 의장품들을 대부분 국산화하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자력자강의 길만이 부흥의 길이라는 인민들의 높은 자존심과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고있다.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 공장은 조업한 때로부터 지난 8년간 생산능력을 부단히 장성시켜 백수십여가지의 당과류와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지방산업공장이다.

그날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며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시고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이 인민들이 즐겨찾는 제품,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공장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보다 완벽하게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하기 위한 현대화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의 기술력량과 우리의 자재, 설비에 의거하여 진행하여 공장을 국산화, 주체화된 생산기지로 꾸려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자력갱생정신을 더욱 북돋아주시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리도록 고무하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전체 인민의 자강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자력갱생의지를 백배해주는 승리와 성공의 원천이다. 모든것을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창조하는것은 자력갱생정신과 불굴의 정신력을 체질화한 공화국 인민들의 기상이며 본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막강한 주체적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였다고 하신 고암—답촌철길에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강용한 기상이 그대로 비끼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업발전에 유리한 고암지구와 답촌지구, 천아포일대에 대규모적인 어촌지구를 형성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선행공정으로 고암—답촌철길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건설하자는 자력자강의 신념과 의지로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철길다리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동해지구에 해상철길다리가 건설되여 나라의 철도운수와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하여지고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려행조건을 보장하여줄수 있게 되였다.

지난 5월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끝낸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력갱생은 모진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고 그 어떤 압력이나 도전, 제재도 뚫고나가게 하는 기적과 비약의 힘이다.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새형의 뜨락또르, 자동차들도 자력갱생정신이 낳은 창조물들이다. 평양양말공장의 제품들과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생산되는 날염천들과 샤쯔천들, 평성합성가죽공장과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질높은 제품들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모든 제품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이 제일이고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해주고있다.

류성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시고 우리의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자력자강의 기치 높이 드시고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그이의 령도의 비범성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평양가방공장에서 생산한 《소나무》책가방을 보시고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였다고 하시며 우리라는 부름을 몇번이나 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자력자강, 자력갱생의 길은 민족적자존심과 존엄을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승리와 성공의 길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존엄떨치는 크나큰 긍지와 승리의 신심드높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완공된 고암—답촌철길

금산포젓갈가공공장

새형의 궤도전차

인민사랑을 전하는 연풍호

오늘 공화국에서는 이민위천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은정속에 경치좋은 곳마다 휴양소와 정양소 등이 훌륭히 꾸려져 근로자들이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그 속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에 떠받들려 온 나라에 소문난 과학자휴양소가 자리잡은것으로 하여 더욱더 유명해진 연풍호도 있다.

평안남도의 안주시와 개천시사이에 자리잡고있는 연풍호는 생태환경이 아주 좋고 경치 또한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장관을 이루고있다.

5 000여리의 물길을 따라 10여만정보의 부침땅을 관개하는 연풍호는 대규모관계체계인 평남관개공사에 의하여 생겨난 호수이다.

호수주변은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고 소나무, 이깔나무, 밤나무, 참나무, 황철나무, 잣나무들이 우거져있고 뻐꾸기, 물오리, 청조, 분디새 등이 보금자리를 펴고있다.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 봄맞이꽃, 살구꽃 등이 활짝 피여 향기가 그윽하고 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이 호수에 비껴 황홀경을 이룬다.

기념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갖가지 물고기들이 헤염쳐다니고 유람선들이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오가는 호수풍경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연풍호의 북쪽 산봉우리에는 호수와 그 주변의 자연풍치를 다 볼수 있게 지은 연풍루가 솟아있고 호수기슭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양소, 휴양소, 유원지와 함께 소년단야영소가 있다.

이렇듯 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종합적으로 리용되고있는 연풍호에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지난날 청천강을 옆에 두고도 가물에 타는 곡식을 살릴수 없어 큰 재난과 불행을 당하기만 했던 이 고장 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가셔주시려 호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공사를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공사가 완공되였을 때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평남관개가 완공된 결과 이제는 열두삼천리벌에 해마다 풍년이 들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며 몸소 호수이름을 《연풍호》라고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전하는 평남관개유래비를 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유래비자리도 정해주시며 세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여 연풍호기슭에는 평남관개유래비가 정중히 세워지게 되였다.

이렇듯 뜻깊은 연풍호기슭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사랑의 금방석을 마련해주시였다.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길 아닌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휴양소터전을 확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볼수록 경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여기에 세상에 다시 없는 과학자휴양소를 지어주자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후에도 건설현장을 거듭 찾으신 그이께서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휴양소로 건설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고 《연풍과학자휴양소》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랑의 금방석인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고급어족들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한해에 새끼쏘가리 수만마리와 먹이용물고기 수십만마리를 생산할수 있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찾으시여 사랑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진정 연풍호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세기와 세기를 이어 전하는 증견자, 뜻깊은 기념비로 그 이름 찬연히 빛나고있다.

하기에 연풍호의 물결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인민사랑의 력사를 길이길이 노래하며 오늘도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리복순

연풍과학자휴양소

민족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여

판문점수뇌상봉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을 마련하시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온 겨레의 매혹과 찬탄, 흠모심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북남 및 조미수뇌회담과정을 지켜본 남조선 각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동포애와 민족애가 뜨거우신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영웅》으로 흠모하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민족사와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특대사변》, 《시대의 물줄기를 정의와 평화에로 돌려세운 전무후무한 대공적》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들에서 《김정은위원장을 좋아한다.》는 응답자가 지난해에 비해 5배나 높아졌다고 한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과 세계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이룩될것이라는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평화는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고 오랜 세월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인 동시에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요구이다. 이를 위해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세기적만남이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내외여론들이 최근 전세계에 대파문을 일으키고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며 전격적인 외교활동들은 그이의 높은 국제적권위와 비범한 예지,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의 뚜렷한 과시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자주화된 새세계건설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가 시작되였다는 환희로 가슴끓이며 더욱 용기백배하여 자주통일대행진에 떨쳐나선 우리 겨레이다.

애국애족의 의지와 원대한 구상, 무비의 담력과 배짱,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조선반도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리서철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여 (12)

절세위인의 풍모에 매혹되여

남조선과 해외의 통일애국인사들가운데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범민련 아메리카주본부 고문이였던 홍동근목사도 있다. 일찌기 그의 가슴속깊이 뿌리박힌 숭미반공의식은 그의 인생길에 곡절많은 운명의 흔적을 새겨놓았다. 운명의 키를 잘못 잡은탓에 해방후 고향을 떠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운명의 항로를 정처없이 저어야만 했던 그에게서 숭미반공은 인생의 신조였고 《애국》이였다. 그의 운명에 새로운 방향전환의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34년만에 찾은 고향방문이였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생각에 마음속 번민을 안고있던 그는 1981년 9월 고국을 찾게 되였다.

고국에서는 해당 일군들이 형님과 함께 비행장에서 그를 따뜻이 맞아주었고 참관과 려관에서의 생활을 무상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었다. 고국에 죄를 짓고 도망친 자신을 탓할 대신 아무런 내색도 없이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돌봐주며 85살 고령의 어머니와 가족을 만나도록 적극 도와나서주는 그 고마움에 홍동근목사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어머니는 미운 자식, 고운 자식 탓하지 않는다 했거늘 그는 공화국방문의 나날 그것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그후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동포들에게 조국방문에 대한 소감을 들려주고 통일을 위해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했다.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 통일운동을 벌리던 그는 공화국창건 40돐경축행사에 참가하는 행운도 지니였다. 조국에서는 그 다음해인 1989년에는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도록 해주었다.

세번째로 조국을 방문한 그는 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는 최대의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주체78(1989)년 7월 조국통일북아메리카협회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홍동근목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어린시절 그의 작은 가슴을 그토록 환희로 휩싸이게 하였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는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금수산의사당(당시)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몸소 승강기가까이에까지 나오시여 홍동근목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을 친절히 맞아주시였다. 그리고 일행을 몸소 식탁으로 이끄신 그이께서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친히 술을 권하시며 조국방문을 환영하시고 건강을 축복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너무나도 소박하시고 너무나도 허물이 없으시였다. 홍동근목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온후하고 인자하신 특유의 인품, 평민적인 모습앞에서 첫 순간에 그이께 매혹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이의 몸가짐에는 봄날의 따사로움이 있었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움이 있었으며 애국애족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같이 가려는 너그러움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홍동근목사와 해외인사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서게 될 통일국가는 어느 나라에도 예속되지 않는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로운 민주주의나라로 될것이라는데 대해서와 우리 민족의 자주성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는 주체사상의 나라라는데 대해서도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정녕 온갖 초목을 안아키워주는 대지와 같은 사랑과 믿음어린 교시였다.

그후 그는 해외동포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어주는것을 자기의 제일가는 사명감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전심하였다.

그것이 통일에로 잇닿아있다고, 그 길에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이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있었다. 그는 도서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와 《백두산의 노래》를 집필한데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도서 《김일성주석 덕성일화 100》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방대한 분량이였지만 그는 열정의 붓대를 놓을줄 몰랐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북받쳐오르는 흠모심에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웠지만 그 위대한 모습을 향해, 민족의 넋을 안아줄 따사로운 그 품을 향해 마주 달려가듯 온 심혼을 기울여 붓을 달리고 또 달리였다. 이윽고 초고가 끝났다. 그는 이어 조국을 방문하여 그 결속을 다그치였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불철주야 긴장한 날과 날을 보내며 붓을 달리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줄이야…

그는 책상을 마주한채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 때는 2001년 11월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생을 마친 그의 장례를 잘 치르도록 조처하시고 유해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이렇듯 통일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삶을 누린 홍동근목사는 오늘도 겨레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북, 남, 해외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북남관계의 획기적개선과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위한 력사적 로정이 시작된 빛나는 민족사의 격변기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를 뜻깊게 진행하였다.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지고 찢기워진 나라와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는 70년을 넘어섰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고난과 락관을 함께 하였던 애국애족의 길에 얼마나 많은 선렬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던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 계승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조국통일의 기치이다.

판문점선언의 채택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조미수뇌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적조건을 담보하게 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커녕 일방적인 요구만을 되풀이하고있으며 개성공업지구와 경제협력재개반대, 《제재》 강화라는 강도적인 내정간섭행위를 로골적으로 일삼고있을뿐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전민족적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을 계승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자주통일의 기치,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민족자주선언, 평화통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며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통일대강이다.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 길에 평화가 있고 민족대단합이 있으며 자주통일이 있다.

해내외 온 겨레가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그 리행에 앞장서나가자!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그 리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자!

2. 민족자주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것이다.

판문점선언의 기본핵은 민족자주이다.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북남관계발전은 반드시 민족자주의 정신과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미국과 내외반통일세력의 공모결탁으로 산생된 제재와 대결공조는 사대주의와 분단악폐의 산물이다.

제재를 유지한채 교류협력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제재에 동조하면 어떤 새로운 관계도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을 제쳐놓고 외세의 눈치를 살펴서는 그 어떤 력사적합의도 실천해나갈수 없다.

더우기 외세의 전쟁위협과 민족문제에 대한 횡포무도한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 북남관계발전은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에 기초한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이루어져야 한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해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자!

3.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반대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준동을 과감히 물리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언이다.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조국통일의 진로를 민족의 힘으로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구성원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거족적운동의 기치는 판문점선언이며 그 목표는 판문점선언리행을 가로막는 해내외의 모든 물리적, 제도적걸림돌을 없애는것이다.

판문점선언과 외세공조, 미군강점은 결코 공존할수 없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억누르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악의 근원은 미국이다.

민족의 운명개척과 자주통일의 진로는 미국반대, 미군철수, 예속동맹해체,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거족적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는데 있다.

모두다 거족적인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자!

4.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기치밑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이다.

북남관계발전을 자주통일의 대통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제재와 외세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며 항구적인 조선반도평화체제실현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다.

또한 우리는 판문점선언에 기초하여 민족공동행사를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승화시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갈것이다.

북남관계의 획기적발전은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의하여 담보되며 이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로 귀결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민족의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제재와 대결책동을 물리치고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반미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2018년 8월 14일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 진행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이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리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리행정형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9월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본사기자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 진행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건설로동자련과 《한국로동조합총련맹》 팀사이, 조선직업총동맹 경공업로동자련과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팀사이의 경기가 11일에 있었다.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 대표단의 주요성원들이 김명환 민주로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로총》 위원장 등 남측의 인사들, 각계층 동포들과 함께 경기들을 관람하였다.

북과 남의 선수들이 대형 통일기를 앞세우고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중들은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환영하였다.

선수들이 좋은 경기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열렬한 박수와 환성이 터져나왔다.

경기들은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가 넘쳐흐르는 속에 진행되였다.

한편 북 대표단은 민주로총, 《한국로총》 성원들과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로동자단체대표자회의, 북남로동자 산업별, 지역별단체들의 상봉모임을 가지였으며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해방의 환희를 통일의 환희로

8월에 들어서면서 례년에 없던 무더위가 이 땅의 모든것을 집어삼킬듯 세찬 열기를 뿜어대고있다.

음지에서도 더위를 막을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상승하고있지만 자연의 열기가 아무리 뜨겁다한들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에야 어찌 비길수 있으랴.

우리 겨레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벌써 일흔세번째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8.15해방의 날 우리 민족은 얼마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던가.

오래동안 잠자던 백두화산대가 뜨거운 암장을 밀어올리며 다시 요동을 시작했는가, 삼천리강산이 격정과 희열로 들끓었다.

말그대로 그날은 《독립만세의 우뢰소리가 하늘에 닿은 날》이였다.

8.15, 조국해방의 날!

이제는 어느덧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였지만 강산을 뒤흔들던 그날의 열광과 환호가 지금도 메아리되여 뜨겁게 울려온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해온 민족재생의 날이였던가.

강도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겨 40여년, 나라를 잃어 상가집개만도 못한 처지로 마가을의 락엽이나 길가의 조약돌처럼 짓밟히고 버림받으며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말과 글, 이름석자마저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겨레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한 생활을 누릴 꿈으로 부풀어있었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나라의 분렬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였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이 전쟁의 재난으로 이어지고 사람의 한생과도 거의 맞먹는 오랜 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혈육들의 생사여부조차 모르며 살게 될줄을 당시는 아무도 몰랐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년세월 우리 겨레는 오로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위업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이 통일운동의 주인이 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벌려온 지난 나날들은 결코 순탄한것만이 아니였다.

민족의 자주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발악적인 도전은 극도에 달했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전진도상에는 예상치 않았던 장애물들이 수시로 가로놓였다.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보수《정권》에 의해 북남관계는 최대로 악화되고 전쟁위험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던 북남관계가 공화국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올해에 들어와 극적인 전환을 이루고 두차례의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에 의해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고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철도협력분과회담, 도로협력분과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회담들에서 일련의 합의들을 이룩하였다.

그 어떤 정세파동이나 주변환경에도 구애됨이 없이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리행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나감으로써 73년전 온 강토를 뒤덮었던 해방의 환희를 하루빨리 통일의 환희로 이어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살미만 국제축구경기대회 개막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살미만 국제축구경기대회가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의 4.25팀, 평양국제축구학교팀과 남조선의 경기도 련천팀, 남강원도팀, 중국의 베이징 인화팀, 로씨야의 하바롭스크 SKA팀, 벨라루씨의 샤흐쪼르팀, 우즈베끼스딴의 분요드꼬르팀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경기장에서 15일 4.25팀과 남강원도팀사이의 개막경기가 진행되였다.

4.25팀이 남강원도팀을 4:1로 이겼다.

이에 앞서 북과 남의 15살미만 녀자축구선수들사이의 축하경기가 있었다.

경기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통일교실

민족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이룩해야 할 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때에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 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온 겨레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그 첫조항으로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해 엄숙히 선언하였다.

10.4선언 역시 첫조항에 북과 남이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것을 명확히 밝히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인 판문점선언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에 천명된 민족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